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김선희	소속(학부/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파견 학기	2019 - 1학기		파견 국가	헝가리
파견 대학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저는 작년 1년간량을 교내 국제교류도우미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로 교환학생 파견을 온 외국인 친구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며, 비록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해 나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해외여행을 즐겨 해왔던 터라 저는 늘 마음속에 해외 거주에 대한 로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보다는 학기를 수강하며 해당 학교 외국 친구들과 어울려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었기에 전공집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 항공권의 경우는 입학 허가증이 나오자마자 바로 국제학생증을 발급 받은 후, 키세스 항공을 통해 구입하는 편이 가장 저렴합니다. 핀에어 기준 편도 3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
- 거주증의 경우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고 서류상 거주 날짜를 집 계약 만료일이 아닌, 조금 넉넉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수강신청, 입학 후 서류 등의 경우 입학 후에는 BME 측에서 메일도 따로 보내주지만 BME ESN 멘토들이 따로 정리해서 공지를 올려주므로 주기적으로 메일, whatsapp을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이 수강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찾아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하루에도 수차례, 꼭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 BME의 경우 외국인 교환학생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해주지 않아 페이스북을 통하여 플랫폼을 미리 구하고 갔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호스텔에 단기로 머물면서 여러 매물을 살펴본 후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도착 후 바로 임시 학생증을 발급 받고 학생용 교통카드를 꼭 만드세요. 1회권이나 일반 한 달 권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허나 검표원의 검사가 잦으므로 임시학생증을 항상 지참하고 다니는걸 추천드립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헝가리 BME는 부다페스트의 그레이트마켓홀 맞은편이자 겔레르트 언덕 옆인 부다 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날씨는 겨울은 한국보다는 덜 춥고 여름은 비슷하나 최근엔 더 덥고 습한 것 같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위치 해있고 24시간 트램도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길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금오공대 캠퍼스 규모가 아닌, 종합대학 수준의 규모이므로 강의 실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전공 2과목, 교양 4과목을 수강하였고 모든 과목은 교환학생들끼리 수강하게 되어 영어로 진행됩니다. 교양 교과목의 경우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과목이 많았고 출석체크를 잘 안 하는 과목이 많았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정규 수업이 아닌, 교환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수업이다 보니 시험을 치기보다는 에세이로 대체한다는 등 상대적으로 시험과 과제물의 압박이 조금 덜했습니다. 시험에 Fail을 해도 재시험이 가능하며, 혹여 재시험의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도 비용을 지불한다면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사전에 페이스북을 통하여 미리 플랫폼을 구해놓은 상태로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한 아파트는 Kalvin ter 지하철 역 부근이면서 학교와 연결된 24시간 트램인 4,6 트램이 지나다니는 곳에 위치하여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쌌지만, 그 중에서 저렴한 방을 찾아 무리없이 지냈습니다. (300유로) 교통편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옵션이 많은 Kalvin이나 Astoria 부근으로 잡는 걸 추천합니다. 여름을 걸쳐서 거주한다면 가급적이면 에어컨이 딸린 방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여름이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데 헝가리가 나라 특성상 에어컨이 설치가 안된 곳이 많아 선풍기를 따로 구매 해야합니다. 또한 겨울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꼭 챙겨가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집이 라디에이터만 있기 때문에 잘 때는 상당히 춥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꼭 꼼꼼히 잘 읽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같은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과 다툼을 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꼭 사전에 보증금을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닌 집도 있지만 몇몇은 새 가전제품을 가져오기보다는 중고를 들여놓는 경우가 많아 고장이 잘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집을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BME의 경우 매 학기 수백명의 교환학생이 머무는 만큼 국제팀이 탄탄합니다. 개강 직전 OT주간에는 7일 내내 짝 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친해질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개강 후에도 International dinner party, Skating, Hiking, Erasmus got talent, Freshman camp 등 다양한 행사가 많습니다. 교환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멘토수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학교처럼 1:1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힘들지만 그룹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은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교내에는 헬스장, 도서관, 대부분의 관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 상당히 잘 되어있고 저렴하며 다양한 GX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실제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동아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환학생들끼리 모여서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동아리는 있습니다. 멘토들에게 말하면 whatsapp에 가입 가능하고 풋살장 대여비만 내면 참여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헝가리는 영어가 아닌 헝가리어를 사용하는 국가라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네 마트, 식당 등 관광지를 조금 벗어난 곳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인상과 말투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의사소통해보면 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서유럽 국가보다는 덜한 편이고 소매치기가 지금껏 여행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적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펍, 클럽등이 늦게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밤에 다녀도 사람이 많고 크게 위험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 할 뿐 늘 경계하고 특히 좁은 골목이나 Blaha역은 조심해야합니다.

웬만한 대중교통이 교통카드 형식이 아닌 검표원에게 표를 확인받아 통과하는 시스템이나, 검표원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허나 Deak, Kalvin ter 또는 관광지 근처 역들은 꼭 검표원이 존재하고 특히 외국인은 꼼꼼히 검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학생일지라도 임시학생증과 거주증 또는 여권은 늘 항상 지참해야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좋은 기회로 부다페스트에 교환학생을 오게 되어서 한국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수업을 함께 듣고 살다보니 회화, 듣기 뿐 아니라 시험공부를 하면서 독해 능력 등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공강시간이나 종강 후 인근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며 견문과 지식을 넓힐 수 있었고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만나 추억을 많이 쌓고 왔습니다.